

陰陽 五行說에 對하야(五)

天台山人의 蒙을 啓함

趙憲泳

辯證法과 陰陽說

모든 事物에 矛盾이 潛在하여있으며 언제든지 正, 反, 合의 法則에 依하야 發展해간다는 것이 辯證法이라면 이 辯證法은 陰陽說의 一方面을 알기 쉽게 말함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모든 事物은 陰陽兩性を 가지고 있으며, 이 陰陽의 交易調和에 依하야 恒常 發展하는 것이다. 陰이 感할때는 陽이 矛盾으로 存在하야 그 現狀을 늘 否定하고 새로운 發展을 企圖하는 것이며, 陽이 盛할때는 陰이 그 속에서 亦是矛盾으로 存在하야 새 方面으로의 發展을 企圖하는 것이다. 그래서 陰陽이 잘 調和될때는 比較的 安穩한것이다.

그러나 그 安靜이 또한 固定的이 아니오. 늘려 있던 陰이나 陽이 伸長發展하는 途程에 있어 서의 한 過程的 現象이기 때문에 그것은一時的이오. 그 過程은 必然的으로 陰이나 陽이 偏勝極盛할때까지 到達하지 아니치 못하는 것이며 그 陰이나 陽이 極盛한때는 矛盾이 極도로 擴大된 때니 여기에 陰極生陽 陽極生陰의 法則에 依하야 그 發展의 方向이 全然 바꾸이는 것이다. 이 陰陽變易의 法則은 어디 가서던지 맞지 아는 곳이 없으니, 第一 먼저 季節의 變換을 보자.

冬至는 밤이 第一길고 추위가 第一甚하고 太陽이 第一멀어서 陰이 極盛한 때다. 이때가 氣候로 볼 때는 陽을 어누 無視한 矛盾이 極도로 擴大된 때다. 여기에 陽이라는 陰과 全然反對되는 힘이 發展하기 始作하야 從來의 陰은次次沒落의 過程을 밟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冬至後 一陽初動」이라는 것이다. 이 陽이 發展하는 過程에 있어서 어느 時期에 가면 陰陽의 勢力이 均衡되어서 陰도 아니오. 陽도 아닌 경울도 아니오. 여름도 아닌 中和狀態인 春分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陽의 發展은 여기서 中止되는것이 아니오. 그때부터 陰은 도리혀

壓迫하기 始作하여 氣候에 陽의 偏勝되는 所謂矛盾이 漸次 擴大되어 夏至에 가서 陽이 極盛하면 그 陽을 否認하는 陰이 發展하기 始作하여, 그 過程에서 秋分을 지나고 冬至에 가서 陰이 極盛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連環的 發展을 하여 陰에서 陽으로 陽에서 陰으로 變換되는 것이 天地運行의 法則이다. 이것을 地文學上으로 보더라도 地軸의 角度關係로 太陽의 直射點이 下地에는 다시 南으로 移動하기 始作하고 冬至에는 北으로 移動하기 始作한다.

이것을 政治制度에서도 볼 수 있으니 政治的 變革이란 結局 專制에서 民主로 民主에서 專制로 變換交易되는것 外에 다른 것이 없다. 小數獨制가 오래 가면 거기에 弊端이 생겨서 多數合議가 必要하게되면 多數 合議制가 오래가면 또한 거기의 弊端이 생겨서 小數專制를 要求하게된다. 「法久生弊」라는 것이 곧 그것이니 法은 制度를 意味하며 弊는 現代 所謂矛盾을 意味한다.